

제공일자	2010. 11. 25(목)	담당자	이진면 동향분석실장
홍보담당	김세환 부장(3775-9051)	연락처	3775-9015

총9매

제목 : 내년 보험산업 두 자리 성장 지속

보험연구원(원장:김대식)은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26일 오전 7시20분부터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보험경영인 조찬회를 개최하였다.

발표에 나선 이진면 동향분석실장은 내년 세계경제가 선진국의 회복세 지연으로 다소 둔화되면서 우리경제에서도 수출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나 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의 견조세에 힘입어 올해 6.1%에서 내년에는 4.2%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금융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하겠지만, 물가상승 압력으로 인해 금리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며, 원/달러 환율은 외환수급의 개선과 달러의 글로벌 공급 우위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보험산업도 FY2011년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겠지만 경기 회복세의 둔화로 성장률은 FY2010(12.7%)에 비해 다소 둔화된 10.6%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생명보험은 내수 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에 따라 전반적인 유지율의 개선, 저축성 보험의 성장 지속, 보장성보험의 회복 및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 등에 힘입어 FY2010 9.7%에서 FY2011에도 7.3%의 견조세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손해보험은 저축성보험 및 채물보험의 지속적인 수요 증대, 실손의료보험의 계속보험료 유입에 기반한 장기손해보험의 견조한 성장세와 개인연금 및 자동차보험의 성장으로 인해 FY2010 18.0%에서 FY2011년에도 16.1%의 고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반면에 의료비의 높은 증가로 장기손해보험의 손해율은 계속 악화될 것이며,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정비수가 인상 및 보험료 할증기준액 다양화 등으로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이진면 실장은 보험산업의 성장성과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나 투자 및 보험영업 구조가 금리나 주가 등 거시경제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충격에 대응한 리스크 중심 경영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선진국의 양적 완화정책과 글로벌 신용위험 완화에 따라 해외투자 부문에서의 리스크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 보험산업의 사회적 신뢰성 제고도 시급한 과제이며, 퇴직연금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위험기준자본금(RBC)제도의 전면 시행, 국제회계기준 1단계 도입에 대한 체계적 준비, 재무건전성 강화 등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ri.or.kr>

『2011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요약

◆ 경제 진단과 전망

□ **(실물경제)** 2011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세 둔화로 수출의 역할은 축소되지만 내수의 견조한 증가에 힘입어 4.2%의 안정적 성장을 보일 전망이다.

○ **동향** : 2010년 실물경제는 상반기까지 수출호조의 지속과 내수의 호전으로 실질 GDP가 1/4분기 8.1%, 2/4분기 7.2%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지만, 3/4분기에 들어서선 선진국 경제의 회복세 둔화로 수출증가세가 둔화되고, 건설경기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4.5%로 성장세가 둔화됨.

- 고용은 수출 증가세의 지속과 기업의 투자 호조세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취업이 확대되면서 실업률이 개선(2010. 1/4 4.7% → 3/4 3.5%)되고 있지만, 청년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구조적 문제로 우려되는 상황임.

○ **전망** : 2010년 경제성장은 상반기의 빠른 회복세에 힘입어 6.1%의 높은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1년에도 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한 내수의 회복세 지속으로 4.2%의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 민간소비는 고용개선에 따른 임금소득 상승에도 불구하고 자산가격의 하락, 부채부담의 증가로 3%대로 다소 둔화되며, 설비투자도 개체설비의 압력 저하, 기저효과의 작용 등으로 6%대로 둔화되고, 건설투자는 공공토목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민간 주택건설의 침체 지속으로 1%대의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 대외부문은 해외 경기회복세의 둔화로 수출입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나,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순수출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경상수지 흑자폭도 축소될 전망이다.

- 고용여건은 내수경기의 회복세 지속으로 서비스를 중심으로 개선되면서 고용률의 상승과 실업률의 하락이 예상된다.

□ **(금융시장)** 국내 금융시장은 국내 실물경기의 회복세 지속으로 안정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물가와 금리의 점진적 상승과 원/달러 환율의 점진적 하락세

가 예상됨.

○ 동향 : 남유럽 재정위기의 조기 진화, 주요국의 양적 완화정책 지속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국내 실물경기도 회복세를 지속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은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 주가지수의 상승세, 신용스프레드의 축소 지속 등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음.

- 원/달러 환율은 전년말 대비 금년 11월 22일 기준으로 4.2% 하락, 주가는 KOSPI 기준 15.5% 상승, 회사채(3년, AA-)와 국고채(3년)간 스프레드는 112bp에서 79bp로 축소되어 외환·주식·자금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 물가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나,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농산물 가격의 급등으로 상승 기조가 나타나고 있음. (2010. 1/4 2.7% → 3/4 2.9% → 10월 중 4.0%)

○ 전망 : 경기회복세 지속과 물가상승 압력으로 국고채(3년)금리의 완만한 상승, 경상수지의 흑자 지속과 달러화의 글로벌 공급 우위 등으로 원/달러 환율의 하락, 내수회복세와 공공요금인상 등으로 물가의 완만한 상승이 예상됨.

- 국고채(3년)금리는 내수를 중심으로 한 경기회복세 지속, 기준금리 및 물가상승 가능성으로 2010년 평균 3.8%에서 2011년에는 4.4%로 점진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의 흑자 지속, 미국의 양적 완화정책 지속으로 인한 달러화의 글로벌 공급 우위 등으로 2010년 연평균 1,150원/달러에서 2011년에는 1,050원/달러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임.

- 물가는 원/달러 환율의 하락으로 국제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의 영향은 제한적이나, 내수 위주의 총수요 증가와 공공요금의 인상 등으로 2010년 2.9%에서 2011년에는 3.2%로 상승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 보험 산업 지표 전망

□ (개관) FY2011 보험산업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견조한 성장세가 유지되었지만 경기 회복세 둔화로 인해 성장률은 FY2010(12.7%)에 비해 다소 둔화된

10.6%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됨.

- 보험침투도(총보험료/경상GDP)는 보험산업 총보험료의 성장률이 경상GDP의 성장률을 상회하면서 12.0%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생명보험)** FY2011 생명보험산업은 경기회복으로 인해 전반적인 유지율이 개선되고 신규 보험가입도 증대됨에 따라 보장성보험의 성장세가 회복되고, 저축성보험 및 단체보험 분야에서의 견조한 성장세가 유지되겠지만 경기회복세 둔화 및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성장폭은 FY2010(9.7%) 대비 소폭 축소된 7.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보장성보험**(종신·CI·상해·암·질병 등) : 유지율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개선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장기화되는 추세이며, 통합형 보험 및 신규 암보험 등 생명보험회사들의 적극적인 신상품 출시와 보장성보험 확대 전략에 힘입어 그 간의 침체에서 벗어나 3.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종신·CI보험 중심으로 실손의료보험을 부가한 통합형 보험의 호조세 지속, 유지율 개선, 보험회사의 보장성보험 확대를 통한 내재가치(embedded value) 향상 노력 등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나, 보장성보험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성장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저축성보험**(생사혼합·생존·변액유니버설·변액연금)은 주식시장 여건호조, 노후소득 마련을 위한 저축 수요 증대, 세제혜택 등에 힘입어 FY2011에도 9.5% 성장할 전망이다.

- FY2011에도 금리상승 폭이 높지 않아 방카슈랑스 채널을 중심으로 한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상품경쟁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변액저축성보험은 주식시장의 여건 개선에 따라 전반적인 수요 확대가 예상됨.

- 일반계정연금 및 변액연금상품에 대한 수요도 1·2차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소득에 대한 관심 증대로 지속될 전망이다.

- **단체보험**(일반단체보험·퇴직보험·퇴직연금) : 2010년 말 퇴직보험이 폐지됨에 따라 퇴직보험 준비금이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퇴직연금으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FY2010에 수입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한 후 FY2011에도 9.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2010년 6월 기준 퇴직보험 준비금 13조 6천억원 중 45% 정도가 2010년 말에 퇴직연금으로 전환되고, 나머지 55% 정도는 2011년에 전환된다고 가정함.

- **(손해보험)** FY2011 손해보험산업은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및 특종보험 성장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겠지만 경기회복세 둔화로 인해 성장 폭은 FY2010(18.0%) 대비 다소 감소한 16.1%를 기록할 전망이다.
- **장기손해** : 저축성보험 및 재물보험의 지속적인 수요 증대, 실손의료보험의 계속보험료 유입에 힘입어 18.7%의 고성장이 예상됨.
 - 저축성보험은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와 고용환경 개선이 부동산시장의 위축과 맞물리면서 견조한 성장이 예상되나, 금년 고성장의 기저효과로 성장률은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 재물보험도 실화법과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한 화보험 개정효과가 시장 수요로 이어지면서 성장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임.
 -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가입대상 인구의 감소와 업권간 경쟁심화 등으로 신계약의 저조가 지속될 것이지만, 기존 상품의 메리트 증가가 해지율 인하로 이어지면서 계속보험료의 성장세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손해율은 갱신형 실손의료보험의 요율조정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증가와 보험료 유입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81.9%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보험** : 제도적인 영향으로 인해 견조한 성장세(개인연금 48.6%, 퇴직연금·보험 30.7%)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퇴직보험은 신규수요 급감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함.
 - 개인연금은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이 2011년 1월부터 40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FY2010 성장률(41.2%)보다 높은 48.6%의 고성장이 예상됨.
 -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시장 자체의 성장세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되나 타 금융업권 대비 경쟁력의 비교열위로 인해 적립금 증가액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전망이다.
 - **자동차** : 내수경기 회복세 둔화의 영향으로 차량등록대수 증가세 약화 및 직판시장 확대 등으로 6.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손해율은 정비수가 인상 및 보험료 할증기준액 다양화의 영향으로 75.6%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원수보험료는 금년 하반기 이후 내수경기 회복세 둔화에 따른 신차판매 증

가세와 차량 고급화 추세의 둔화 및 가격경쟁의 영향으로 성장폭이 제한적일 것임.

- 손해율은 원수보험료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가격경쟁의 심화, 정비수가 인상, 보험료 할증기준액 다양화의 영향과 유가안정세 및 휴일증가로 인해 주행거리가 늘어나면서 크게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보임.

○ **일반손해** : 특종보험의 성장세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기회복세 둔화 및 요율인하에 따른 여파로 일반손해보험은 4.9%의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 화재보험은 화보험 개정으로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되겠지만, 제도변화의 효과가 재물보험 및 종합보험으로 분산되면서 침체기조가 계속될 전망이다 [FY2010 -6.5%, FY2011 -1.2%].
- 해상보험은 수출입 물동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환율하락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플러스로 전환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됨 [FY2010 -5.7%, FY2011 -0.7%].
- 보증보험은 부동산경기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이행보증보험을 포함한 기타 보증보험의 부진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FY2010 4.2%, FY2011 3.6%].
- 특종보험은 종합보험의 성장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의료비 상승과 기업의 복리후생 확대에 따라 상해보험 수요가 확대될 것이며, 고용시장의 개선과 환율하락으로 인해 여행자보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FY2010 8.7%, FY2011 6.8%].

<붙임 2>

2011년 보험산업 및 경제 주요 전망치

1. 보험산업 주요 지표

항 목	FY2008	FY2009	FY2010(E)	FY2011(F)
수입보험료(억원,성장률)				
- 생명보험	735,614 (-2.0%)	769,568 (4.6%)	844,382 (9.7%)	906,023 (7.3%)
- 손해보험	374,953 (10.3%)	438,323 (16.9%)	517,007 (18.0%)	600,252 (16.1%)
- 전 체	1,110,567 (1.8%)	1,207,891 (8.8%)	1,361,389 (12.7%)	1,506,275 (10.6%)
보험침투도(%)*				
- 생명보험	7.2	7.0	7.2	7.2
- 손해보험	3.7	4.0	4.4	4.8
- 전 체	10.9	11.1	11.6	12.0
1인당보험료(천원)				
- 생명보험	1,513	1,580	1,727	1,858
- 손해보험	771	899	1,058	1,225
- 전 체	2,285	2,478	2,785	3,074
생존보 구성비(%)				
- 생명보험	66.2	63.7	62.0	60.1
- 손해보험	33.8	36.3	38.0	39.9

주 1) 보험침투도는 (총수입보험료/경상GDP)×100임.

2)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

2.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전망치

(단위 : 억원, %)

보험종목		FY2008		FY2009		FY2010(E)		FY2011(F)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생 명 보 험	보장성	304,888	-0.6	299,386	-1.8	302,663	1.1	312,967	3.4
	저축성	372,638	0.1	397,165	6.6	444,259	11.9	486,389	9.5
	개인소계	677,526	-0.2	696,551	2.8	746,922	7.2	799,356	7.0
	단 체	58,087	-19.2	73,017	25.7	97,460	33.5	106,667	9.4
	합 계	735,614	-2.0	769,568	4.6	844,382	9.7	906,023	7.3
손 해 보 험	화 재	2,835	-7.8	2,763	-2.5	2,584	-6.5	2,553	-1.2
	해 상	8,507	30.5	8,049	-5.4	7,590	-5.7	7,537	-0.7
	자동차	109,371	1.2	112,224	2.6	123,671	10.2	131,462	6.3
	보 증	11,529	16.0	12,287	6.6	12,803	4.2	13,264	3.6
	특 종	30,901	8.9	35,371	14.5	38,448	8.7	41,062	6.8
	장 기	188,828	15.5	232,988	23.4	282,848	21.4	335,740	18.7
	개 인	12,853	28.6	17,841	38.8	25,191	41.2	37,434	48.6
	퇴 직	10,129	-2.5	16,799	65.8	23,872	42.1	31,200	30.7
	합 계	374,953	10.3	438,323	16.9	517,007	18.0	600,252	16.1

주 : 1)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

2)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과 권원보험, 부수사업이 포함됨.

3.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

(단위 : %)

경제지표	CY2008	CY2009	CY2010(E)	CY2011(F)
실질GDP	2.3	0.2	6.1	4.2
(경상GDP)	5.5	3.6	8.9	6.2
민간소비	1.3	0.2	4.1	3.6
설비투자	-1.0	-9.1	22.1	6.8
건설투자	-2.8	4.4	-0.2	1.1
총수출	6.6	-0.8	13.1	8.5
(재화수출)	4.6	0.0	14.5	8.9
총수입	4.4	-8.2	16.8	9.6
(재화수입)	4.5	-7.9	18.3	9.3
경상수지(US\$억)	-57.8	426.7	285.4	145.6
상품수지(US\$억)	56.7	561.3	538.0	440.0
상품수출 (%)	4,329.2 (14.2)	3,735.8 (-13.7)	4,693.3 (25.6)	5,122.2 (9.1)
상품수입 (%)	4,272.5 (21.8)	3,174.6 (-25.7)	4,155.3 (30.9)	4,682.2 (12.7)
고용률	59.5	58.6	58.8	59.1
실업률	3.2	3.6	3.8	3.5
소비자물가(연평균)	4.6	2.8	2.9	3.2
국고채(3년)(연평균)	5.3	4.0	3.8	4.4
원/달러(연평균)	1,099.5	1,278.4	1,149.6	1,050.3
(4/4분기 평균)	(Q4: 1,362.8)	(Q4: 1,168.6)	(Q4: 1,105.4)	(Q4: 1,024.1)